

보성군 '사고·쓰레기·바가지 3無' 다향축제 연다

순환버스 10분 간격 운행 민관합동 현장 점검 등

보성군이 5월3일 열리는 '제47회 보성 다향대축제'를 앞두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친환경 축제 구현, 바가지요금 대응 등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3무(無)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24일 보성군에 따르면 봄철 건조한 날씨와 동풍, 인파 밀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해 축제별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심의, 축제장 합동 안전 점검 등을 추진해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관리 체계는 △공연구조물 안전성, △전기·가스 안전, △소화 시설 비치 여부, △화재 예방, △혼잡지역 교통 대

책, △비상 상황 대응체계 등에 대한 사전 안전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상황 유지, 안전관리 등을 위해 응급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보성경찰서, 보성소방서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축제는 주요 행사 장소인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입구부터 주무대까지 '차 없는 거리'로 임시 지정하고, 10분 간격으로 순환버스를 운행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차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

순환버스(셔틀버스) 탑승장 앞 다향아트밸리 주차장은 18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으며 도보 5분 거리 임시 주차장은 10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자원 순환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방문객들은 음식과 음료를 다회용기에 받게 되며, 방문객이 다회용기를 지정된 수거 지점에 용기를 반환하면 세척 서비스 업체에서 수거·세척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축제를 구현하기 위해 투명 페트병·캔 무인회수기에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천연 비누 및 수세미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상시 운영하고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차(茶) 무료 시음 공간에도 다회용 컵을 비치한다.

지역축제의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먹거리 바가지요금을 근절에 나선다. 보성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위생점검 및 바가지요금 근절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축제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사전 위생 및 요금을 점검했다.

지난 18일에는 축제 입점 먹거리 판매부스 사전시식회를 개최해 입점 업체들의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표시, 친절 한 외식 환경 제공 등을 약속받았으며, 보성군은 방문객들을 위해 축제장 입점 먹거리 정보를 사전 제공한다.

지난 22일에는 보성군 관내 식품업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여 친절한 서비스 제공 및 부당요금 근절을 다짐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결의대회 및 위생 친절 교육을 펼친 바 있다.

한편 보성군은 오는 5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보성 다향대축제를 비롯해 △보성군민의날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녹차마라톤대회 △한국음티미스트 전국 요트대회 △테일리콘서트 △드론라이트쇼 등 축제를 개최한다. **양기람 기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순천시, 6713명 선정

순천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 6713명을 선정하고, 문화·복지에 사용 가능한 행복바우처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매년 선불형 기프트카드를 지급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본인 명의 농협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

기존의 선불형 기프트카드 지급 방식은 매년 신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포인트 지급 방식 변경으로 그간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액, 잔액 등 알림 문자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농협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대상자는 카드를 신규 발급받으면 5월 중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문화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연 20만원의 행복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전남도 우수 분재대전' 연다 보성군, 5월3일부터

보성군이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한국 청소년수련원에서 '제9회 전남도 우수 분재대전'을 개최한다.

'제9회 전남도 우수 분재대전'은 (사)한국분재조합 전남지부에서 주최하고 전남도와 보성군이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에 병행해 추진된다.

이번 행사는 야외무대인 만큼 특대품, 중품, 소품 등 100여점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 관람객들과 분재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전남도 우수 분재대전은 지역 우수분재 발굴 및 홍보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양기람 기자**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광양시, 인력 부족 해소

광양시는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광양농협과 동광양농협 2개소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1회 추경으로 사업비 5000만원(자부담 포함)을 확보해 시 대표 작물인 매실, 밤, 감 등의 농작업을 하는 농민들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다압농협에 추가로 운영할 방침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중개하고, 농작업자를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일손 필요 농가와 농작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광양농협, 동광양농협, 다압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구직자는 도농인력중개 플랫폼(www.agriwork.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초등북스타트 그림책 선물 광양희망도서관

광양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초등북스타트(책날개) 꾸러미를 나눠준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북스타트 '책날개'는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 독서를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책 꾸러미는 북스타트코리아 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그림책 겁이 나는 건당연해', '내가 예쁘다고?' 2권과 학부모를 위한 안내책, 북스타트 가방으로 구성됐다.

지난 16일부터 광양시립도서관(△희망 △용강 △중마 △금호) 4곳에서 선착순 배부 중이며,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책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희망도서관은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면 단위의 작은 학교(옥룡초, 옥룡북초, 세풍초, 광양북초)를 찾아가 꾸러미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초등북스타트 책날개' 행사를 운영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매월 마지막 월요일 정기휴무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지난 1일 AI와 문화콘텐츠를 더해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이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월요일 정기휴무를 실시한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년 개장 이후 연중무휴로 운영됐다. 지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천만 명이 육박하는 관람객을 유치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까지 박람회 준비를 위한 휴장을 제외하고 단 하루의 정기휴무 없이 연중상시 운영했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최초 매월 정기휴무를 도입하여 매점표, 미화 등 정원을 운영하는 종사자에게는 휴식을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는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정비·보수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가 국가정원 정기휴무를 처음으로 도입한 해인 만큼 유관기관, 여행업체 및 관광협회 등 다각적 홍보를 통해 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시가 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초등북스타트 꾸러미를 나눠 준다. **광양시 제공**

전남도, 치매 예방·치료·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전남도가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가 안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예방·치료·돌봄 등 전담형 치매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 하태길 노인건강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보성군 치매안심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전담형 치매관리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을 점검했다.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도는 65세 이상 전국 치매노인 인구

99.8만명 대비 5.6만명(5.6%)을 차지하며 치매노인 유병률은 전국 평균 10.5%를 상회하는 12.2%에 이르는 등 지역의 선제적인 치매 예방·관리 역할이 강조되는 지역이다.

전남은 지난해부터 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77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돌봄보다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관리 체계 확충을 위하여 전담형 치매 돌봄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치매환자 예방을 위하여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조기 검진

을 무료로 실시하고 치매검사비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매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를 140%로 확대하고 1인당 월 3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매환자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서 치매안심병원(1~3개소)과 치매안심마을(106→125개소)을 확충하고 치매안심관리사 양성, 환자·가족 안심캠프, 이동편의 서비스를 전시에군에 제공하고 있다. **박간재 기자**

고흥군, 유자에이드 프랑스 파리 올림픽 음료시장 공략

고흥군은 24일 엔자임팜(대표 김주호)에서 고흥 유자에이드 프랑스 수출상 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공영민 고흥군수가 이끈 '고흥군 농수산물 유럽 수출개척단'이 지난 4월 초 프랑스 파리 출장을 통해 총 500만 달러(한화 68억원) 규모의 수출협약 체결에 따른 첫 성과이다.

수출길에 오른 상품은 엔자임팜의 고흥유자 원액으로 만든 유자에이드로 2만 4000팩(230ml)이며, 이번 1차 수출 상



차를 기점으로 유자 마멜레이드, 유자 곡물당, 고흥 유자차, 고흥 김 등을 계속해서 수출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의 K푸드 열풍과 2024년 파

리 올림픽 시장 특수에 맞춰 현지인 입맛에 맞는 유자 관련 신상품 개발 출시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온 결과로써 그 의미가 크다는게 고흥군의 설명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출 판로 개척과 고급 식재료 시장 진출에 노력해 세계인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가치 브랜드 상품을 만드는 한편, 농어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로는 행정직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